

“힘겨운 하루 곁에 선 이웃들, 광주가 함께 버팀목 됐다”

초등학교 3학년 김양에 대한 지원 소식입니다. 김 양은 현재 어머니하고 함께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 양의 어머니가 전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밤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혼자서 밥을 해결해야 하고 늦은 시간까지 혼자 있다 보니 외로움을 느끼고 학습 의욕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한참 지라는 시기이다보니 영양 섭취를 해야 하지만 라면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면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시력이 갈수록 안 좋아져 집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밝은안경21 학동점 진미정 대표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김 양은 안경점에 들러 새로 안경을 맞추고는 선명하게 잘 보인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밝은안경21은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669-1 (학동 858-4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경 맞추는데 도움을 주신 밝은안경21 학동점 진미정 대표님 감사합니다.

50대 김모 여성에 대한 지원 소식입니다. 김 씨는 지적장애가 있으며 혼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기초 생계비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빨래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발달장애의 특성 상 복잡한 세탁 방법을 이해하지 못해 빨래방을 가지도 못하고 외부 세탁 시설을 이용하기도 못해 손으로 세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세탁기를 구입할 수 있는 형편도 못돼 걱정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를 했습니다.

재능기부 스토리

절망의 문턱서 만난 나눔

보이지 않던 세상 환하게, 무더위는 시원하게 월세 체납부터 가전 고장까지 ‘연대의 손길’

김 씨는 세탁기가 없어서 고생했는데 이 제부터는 굉장히 편할 것 같다고 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는 힘든 일 없이 편안하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40대 결혼 이주여성 A 씨에 대한 지원 소식입니다. A 씨는 두 명의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시집 와 남편과 함께 지내면서 자녀를 낳고 생활해 왔는데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결국 이혼하고 자녀와 함께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본국에서 살고 있던 자녀를 입국시켜 두 명을 양육하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중도입국자녀들을 위한 학교도 가지 않고 자해까지 시도하더니 가출까지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집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비자 만료로 인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했습니다.

비싼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소정의 금액만 정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매 월 갚겠다는 지불각서를 쓰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병원비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해 월세와 공과금이 체납됐고 기초생활마저 곤란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들 사업을 통해 밀린 월세를 지원하고 재능기부센터에서는 생활용품들을 지원하였습니다.

A 씨가 힘든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90세 김모 어르신에 대한 지원 소식입니다. 김 씨는 현재 부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도 80대 후반의 고령의 부부입니다.

김 씨는 불같은 성격으로 남들과 충돌도 잦았고 화가 나면 주체하기 힘들 정도로 성질을 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기는 했지만 지금도 버럭버럭 화를 자주 낸다고 합니다.

아내는 평생을 옆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시면서 타고난 성격이니 고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더욱 나이가 들었고 장기요양등급도 받게 돼 노인 주간보호센터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간보호센터서 이용자 분과 마찰이 생기고 기어코 폭력까지 행사해 주간보호센터 이용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의 외출하지 않고 두문불출하다 보니 인지기능은 점점 떨어져 결국 집을 찾아오는 것도 힘이 들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덩치도 큰 할아버지는 갈수록 왜소해지고 식사를 거르는 일도 찾아



김 양의 시력을 측정하고 있는 밝은안경 21 학동점 진미정 대표.

져 할머니는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날씨가 더워져 선풍기를 꺼내서 보니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따이 많은 할아버지를 위해 선풍기를 구입하려고 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고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노부부를 위해 선풍기를 구입해서 설치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갈수록 기력이 없어지고 건강이 안 좋아져 걱정이라고 하시면서 따이 많은 할아버지가 선풍기를 통해 올 여름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고령의 부부가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80대 후반 김모 할머니에 대한 지원 소식입니다. 할머니는 현재 혼자서 지내고 계시는 독거노인입니다.



50대 김 모 여성 가정에 지원한 세탁기 모습.



80대 김 모 할머니를 위해 지원한 선풍기.

그래서 선풍기를 구입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올 여름이 많이 덥다고 해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이었는데, 선풍기가 생겨 한시름 놓았다고 하시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혼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 할머니가 식사도 잘 하시고 여름을 잘 이겨내서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우철 광주재능기부센터 대표
▶문의사항 (기타 문의도 가능)
“광주재능기부센터. 나눔 N JOY”
전화 : 062) 431-0918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78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